'계율사상' 재조명

부산·경남언론인회 세미나

부산경남 불교언론인회(회장 이상철)는 10월 23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제1회 국제불교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 불교대학교 한국분교 주관으로 치뤄진 이날 행사에는 가야사 주지 마성스님, 이종군 금정중학교 교법사, 곽만연 동아대학교 교수, 난다 스리랑카 국립팔리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자로 주제강연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계사상'을 주제로 한국불교에서의 계율사상을 살펴보고 지계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부산경남 불교언론인회가 선정한 제1회 불교언론인상으로 불교부산방송의 이준식 아나운서가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네팔에 한국불교문화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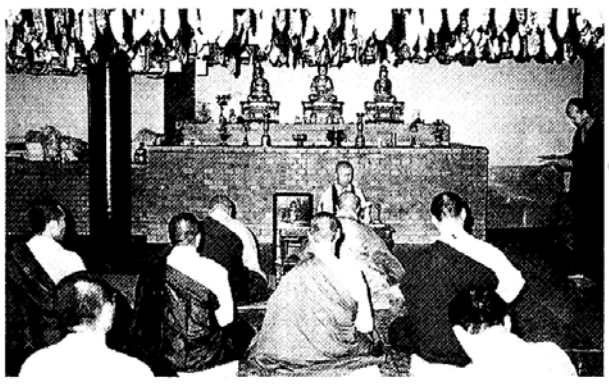
초대 이사장 금정스님…한국불교 보급

룸비니 지역 불교 유적지 조사 발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한국불교문화진흥원이 네팔 카투만두에 설립됐다.

한국불교문화진흥원은 10월25일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초대 이사장에 금정스님(前중앙승가대학장)을 선임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견산(백련암 주지) 법신(네팔 대성석가사주지) 범산(영주암 주지) 종삼(향일암 주지) 도완(법흥사 주지) 선진(도솔암주지) 영경(네팔 보광선원주지) 등 스님들과 김성태 주네팔한국대사관영사, 사상호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운경방송작가 등 50여명의 한국불자와 네팔인 불자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원장이며 초대 이사장에 선임된 금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탄생성지가 세계문화유적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각국의 불교문화가 꽃피우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한국불교문화의 위상을 정립하고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제시하고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유적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보호 보존 및 개발의 주요성을 온 인류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부흥한국대사의 격려사, 정덕용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한국불교문화진흥원은 10월 25일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네팔에 본부를 둔 한국불교문화진흥원은 국내에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제주도 등 주요도에 8개지부를 두는 한편, 세계불교문화 연구와 교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네팔에는 현재 한국 종교관계 문화원이 기독교계통으로 2개뿐이며 불교계 문화진흥원이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부여 무량사

◇부여 무량사 천불전은 건축불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불사가 진행돼고 있다. 원내는 주지 지연스님.

임란때 불탄 천불전 복원

국고 4억 들여 내년 낙성

대웅전·김시습기념관 추진

백제사찰 옛모습 재현

고난은 중생을 슬프게 한다. 현세에서 괴로움을 겪는 인간에게 해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이 IMF 관리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한분도 아닌 천분이 충남 부여 만수산 자락에 나투실 채비를 하고 있다.

무량사(주지 지연)는 4년전 극락전(보물 제156호) 왼쪽 1백여미터 지점에 약 30여평의 부지를 마련, 천불전 기공식을 갖고 불사에 착수했다. 불사비용(3억4천여만원)은 전액 국비보조를 받았다.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으로 모든 사찰이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무량사 천불전 불사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천불전에 관세음보살을 모셔야겠다는 발원을 해서인지 어려울 때마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로인해 무량사 천불전은 현재 건축불사와 단청까지 마무리하고 내부불사만 남아있는 상태다. 천불전에는 백의·선관음·수월관음보살을 원불로하며 약 24cm크기의 관세음보살 천기가 봉안된다. 이 불상은 은행나무로 조성되며 현재 4백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불단도 제작중이며 주변 조경불사도 곧 시작할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초 무량사를 찾는 참배객들에게 웅장한 천불전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량사에는 창건당시 천불전이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돼 현재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무량사측은 이번 불사가 신축불사라기 보다는 복원불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량사는 천불전불사에 이어 대웅전(54평), 제석문, 김시습기념관(50평) 등의 불사를 추진, 백제불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찰로 사격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현재 사찰 각 시설들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연스님은 "관음의 대자비는 그 어떤 불·보살의 자비보다도 길고 넓다.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교화의 자비행을 실천할 것이다"라며 대자비의 발원인 관음보살 천분을 봉안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WFB 부회장에 양장운씨

호주대회서…WFBY 부회장엔 이상대씨

'오계파지' 상설위 구성

호주 남천사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 제20차 및 세계불교청년우의회 제11차 총회가 20여개국 60여지구가 참여한 가운데 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본부 임원을 선출한 이번 총회에서 양장운(국제포교사회장)씨는 세계불교도교우회 부회장에, 전팔근(세계불교도교우회 원불교지구)씨는 상임이사에, 이상대(대한불교청년회장)씨는 세계불교청년우의회 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세계불교도우의회 및 세계불교청년우의회 회장에는 반 와나메티(아센사무총장·태국)와 소마이 콘사코(달마가야 재단·태국) 등이 당선됐다.

◇양장운씨

◇이상대씨

이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박동기회장(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지구)이 94년 태국에서 열린 WFB 총회에서 발표한 '팔차실라(오계파지)'의 중요성이 이번 총회에서 새롭게 부각돼 부설 위원회로 상설되기도 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양장운 부회장은 "이번 총회는 한국불교가 96년, 98년 '불교도우의회 총회 무산'이라는 오점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세계 불교계에서 한국불교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세계불교도우의회 가입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세계불교도우의회 부회장 선거에 양씨와 김광태씨(한국불교연합회지구 회장) 2명이 동시에 출마하고, '팔차실라' 위원회 신설에 대해 찬·반으로 대립하는 등 불협화음을 연출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및 세계불교청년우의회 차기 대회는 2년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참사람 수련생 130명 도반만남의 날 행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10월 31일부터 1일까지 1박2일간 수행관에서 '참사람 수행결사 도반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97년 7월부터 98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실시된 수행결사 수련생 4백76명(남 2백77명·여 199명)가운데 1백30명이 참석, 수행의 소감 및 체험이야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참사람 수행결사 수행자의 자세(일수 운문선원장)'에 대한 강의와 좌선, 수행결과보고, 산행, 좌담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수련생들은 참사람 수행결사 도반만남의 날을 매년 1~3차례정도로 정례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중근 기자

화엄종 승가장학재단 20돌

'장학재단史' 출판…1천3백여명 학업지원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78년 설립된 화엄종 승가장학재단이 20주년을 맞아 3일 인천 약사사에서 〈화엄종 장학재단史〉 출판기념법회를 가졌다.

화엄종 승가장학재단은 20년전 정희수씨(중앙종회 의장, 장학재단 이사장)가 구하스님(화엄종 종정)과 함께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승려 및 군법사, 불교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해 설립했다.

화엄종 승가장학재단은 79년부터 1천3백여명의 고등학생에게 매년 4백만원에서 1천4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6년 전부터는 공익법인 화엄종장학회를 설립,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화엄종장학회'는 장학기금을 증자해 기존 장학금전달사업 외에도 화엄학 종지 발현을 위한 화엄학 연구지원사업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정희수 이사장은 "화엄종 장학회 20년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동시에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불교·각계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화엄종 장학재단사〉를 편찬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달라이라마 티벳 1국 2체제 제안

중국과 협상…외교·국방외 자치권한 요구

망명중인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홍콩식의 '1국2체제' 자치방안을 중국과 협상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이 라마는 독립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 티벳지역으로 규정한 지역이 아닌 원래의 모든 티벳지역을 영토에 포함시키고 홍콩보다 더 많은 자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4일부터 열흘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달라이 라마가 이런 내용의 '티벳민족지배안'이 담긴 성명서를 마련했다고 3일 보도했다.

티벳망명정부 의회의장 삼동린포체는 1일 "홍콩식의 1국2체 제방안을 부분적으로 티벳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벳망명정부가 구상하는 티벳민족지배 방안은 외교와 국방은 중국정부가 맡고, 경제·사회·문화·교육정책은 티벳이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40년만에 중국을 방문, 불교성지인 산시성 우타이산에서 강택민 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3만여 불자 국난극복 결의

삼광사 창립 29돌…실직자 돕기등 행사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 1일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창립 29주년 기념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 대법회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비롯 3만여 불자가 동참해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았다. 특히 이번 법회는 그동안 열려온 경제난 극복기원 법회중 전국에서 대규모여서 관심을 끌었다.

기념법회에 이어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 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의 문화행사와 사회복지성금 및 실업자 돕기를 위한 알뜰장터가 이어졌다.

한편 삼광사는 69년 창립법회 이후 총부지 3만5천평에 건평 6천여평의 규모를 갖춘 사찰로 문화, 포교, 교육 등 부산 불교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전북불교총련 체육대회

전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영·금산사 주지)는 1일 전주연초제조창 운동장에서 제1회 전북불교 총연합 회장기 쟁탈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군산, 남원, 익산, 전북, 화엄불교대학을 비롯 금산중·상고 교직원 및 가족등 1천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 삼각경기, 줄다리기, 민속경기(널뛰기 제기차기 등), 대동한마당등을 비롯 참생명살리기 서명운동(낙태반대운동)을 펼쳤다.

김중근 기자

숭림사 중창불사회향 25일 만등불사 대법회

전북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25일 중창불사 회향식 및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90년부터 시작된 숭림사 중창불사는 8년에 걸쳐 보광전(보물 825호) 정혜원 우화루 나한전 영원전 보수및 범종각, 산신각, 요사채인 안심당 등을 신축했다. 또 진입로 포장, 담장, 석축공사등 주변을 정리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 청사이전 및 개원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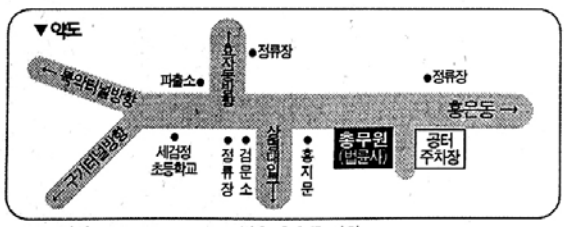
그간 본종 총무원이 지방에 주재하고 있어 교계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행사나 포교활동에 적극 동참하지 못한점 깊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총무원 이전을 계기로 종단 전 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종단 중흥과 교계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할 것을 천명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이전 안내

본종 총무원을 아래 장소로 이전하오니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불기2542(1998)년 11월 10일 11시	
장소	신(이전장소) 총무원	전총무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4-8	충북충주시 교현2동 539-21
전화	(02)3216-0165	(0441)44-3000
FAX	(02)3216-0166	(0441)845-5150



● 노선버스 : 8, 8-1, 522-2, 59번은 홍은동 방향
135, 135-1, 2, 3, 136은 효자동 방향

종정 승정 / 부종정 승정원장

총무원장
부종무원장
재무부장
정사원장
정감원장
부사찰부장
호법원장
중앙종회의장
포교원장
포교부장
교육원장
교육부장
수련원장
수련부장
지도원장
지원부장
교선원장
교학부장
문화원장
문화부장
부원장
교리연구원장
홍보부장
사회복지부장
재무부장
교무부장
총무부장
무원장
무부장
무부장
무부장
무부장
무부장
무부장

울산불교대학 교장 각묵스님
산청불교대학 교장 석대산스님
경남불교대학 교장 대산스님
경북불교대학 교장 지현스님
충북불교대학 교장 지원스님
충남불교대학 교장 우암스님
경기불교대학 교장 성타스님
강원불교대학 교장 지정스님
남원불교대학 교장 지추스님
북원불교대학 교장 대지스님
남원불교대학 교장 지지스님
북원불교대학 교장 법청스님
남원불교대학 교장 혜택스님
북원불교대학 교장 법신스님
남원불교대학 교장 지대스님
북원불교대학 교장 지암스님
남원불교대학 교장 지인스님
북원불교대학 교장 청진스님
남원불교대학 교장 대성스님
북원불교대학 교장 지덕스님
남원불교대학 교장 혜대스님
북원불교대학 교장 대대스님
남원불교대학 교장 대각스님
북원불교대학 교장 석대스님

연경원장 공진회장 봉명원장 봉혜원장 강화원장 담화원장 월담원장 범연원장 심혜원장 관봉원장 도봉원장 운경원장 운진원장 봉광원장 봉수원장 해아원장 겸도원장 연봉원장 봉봉원장 봉정원장 운마원장 청일원장 월진원장 호화원장 봉산원장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원장 이 혜 공